



우리 대학의 장학지원 제도

다양한 교내 장학금을 통한 부담 감소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오직 학업 성취와 생활 안정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매우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교내 장학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장학 시스템은 단순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만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부터 대학 발전에 이바지한 특별 공로자까지 다양한 학생층을 포용하며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적 우수 장학금인 호천 장학금은 입학 당시부터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에서 각각 전체 1등과 2등을 차지한 수석 및 차석 학생에게는 첫 학기 수업료 전액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입학 이후에도 평균 학점 3.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할 경우, 잔여 학기 동안에도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어 졸업 시까지 학비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아울러 학과별 최우수 성적자로 선발된 학생 역시 이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많은 학생의 학업 동기를 고취하고 있다.

학과별로 폭넓은 수혜 기회를 제공하는 지덕배양 장학금 또한 우리 대학의 핵심 장학 제도 중 하나이다. 이 장학금은 모집 학과별 규모에 따라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과 규모에 따라 1~3등에게는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며, 4~6등에게는 70%를, 7~9등에게는 40%의 수업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추가로 일정 인원에게는 50만 원의 장학금을 별도로 지원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성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 대학은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 자치 활동과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열정도 높게 평가한다. 학생 자치 활동을 장

장학제도 안내						
장학금 명칭	수혜자격				기준상적	지급(면제)액
지덕배양 장학금	구 분	~60명 모집학과		61명~100명 모집학과	101명 이상 모집학과	금 액
	성적우수 A등급	1등		1,2등	1,2,3등	수업료 전액
	성적우수 B등급	2등		3,4등	4,5,6등	수업료 70%
	성적우수 C등급	3등		5,6등	7,8,9등	수업료 40%
	성적우수 D등급	4등~배정 예산내		7등~배정 예산내	10등~배정 예산내	수업료 500,000원
초지 일관 장학금	A	총학생회장, 대의원회장, 동아리연합회회장				수업료 전액
	B	부총학생회장, 대의원부회장, 동아리연합회부회장				수업료 80%
	C	총학생회국장, 도서관장, 대의원총괄위원, 동아리연합회부장				수업료 60%
	D	학과학회장, 도서관장, 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대의원총괄위원				수업료 30%
	E	변대표, 학과부학회장, 단과동아리회장 * 변대표 중 학과 대의원 활동을 겸하는 자는 100,000원 추가 지급				수업료 15%
	F	구 분	신입생 모집원			수업료 300,000원
학과학회장	~60명	61~100명	101~140명	141명~		
보통 장학금	자녀	국가유공자 자녀				별도기준
	본인	학생본인이 국가유공자인 자				수업료 전액 (학교 50% + 국가 50%) 수업료 전액 (학교 100%)
재직자녀 장학금	본 대학 및 법인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직제)자				2.0 이상	수업료 전액

▲ 우리 대학 장학제도 안내문의 일부

려하기 위해 마련된 초지일관 장학금은 ▲총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등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회장단은 수업료 전액 또는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과 대표 및 주요 임원진 역시 역할에 따라 최대 60%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대학의 위상을 높인 학생에게는 공로 장학금이 수여되며 학보사 및 방송국 장학금이 각 활동 학생들에게 지급되어 학생들의 다양한 자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경제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복지형 장학금도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 서일사랑 장학금은 국

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별도로 책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더불어 보훈 장학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본인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예우를 다하고 있다. 특히 한 번의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도 눈에 띈다. 학사경고를 받았던 학생이라도 다음 학기 평균 학점이 3.0 이상으로 향상될 경우 성적향상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독려한다.

이 외에도 교내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을 위한 서일 도움 장학금, 가족이 함께 재학 중일 때 한 명에게 등록금 50%를 감면해 주는 서일가족 장학금 등이 상시 운영 중이다. 또한 ▲세움(장애 학생) ▲돋움(다문화가정 자녀) ▲탈북 대학생 장학금 등 세심한 배려가 담긴 항목들이 마련되어 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창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창업 장학금은 ▲창업 동아리 활동 ▲창업 대회 입상 ▲사업자 등록 및 매출 실적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자매결연 해외학기제,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모든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나 ▲서일 도움 ▲포인트 ▲서일 지킴이 ▲창업 ▲공로 ▲홍보 대사 등의 기타 장학금은 예외적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가 가능하다. 이처럼 우리 대학의 다채로운 장학 제도를 발판 삼아, 많은 학생이 생활의 안정을 찾고 자신의 학업적 목표를 달성하길 바란다.

최용렬 기자 dydfuf123@gmail.com

제23회 청주국제단편영화제

23rd Cheongju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2026년 8월 개최 확정

출품 공모 안내

내 용
주어진 주제의 단편영화를 출품하는 영화제

접수기간
2026. 03. 02.(월) ~ 2026. 06. 03.(수) 23:59

대 상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국민

신청방법
FilmFreeway를 통해 온라인 접수

문 의
cisffksw@gmail.com 이메일 문의

주요사항
1) 2025년 1월 1일 이후 완성된 작품
2) 엔딩크레딧 제외 러닝타임 30분 이하의 작품
3) 모든 작품은 영문 자막을 포함. 영문 자막이 없을 시, 제외될 수 있음
4) 시놉시스와 연출 의도를 작성
5) 모든 섹션은 동시 출품이 불가능하며, 하나의 섹션에만 출품할 수 있음

■ 단체 출품 가능, 단체 출품 시, 홈페이지 내 단체출품신청서를 작성 후 E-mail 접수, 신청서 파일명은 회사명 또는 대학교명으로 제출

■ 단체 출품은 10개 이상의 작품부터 가능

Contents	
1 면	우리 대학의 장학지원 제도
2 면	우리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소개
3 면	2) 카페인 섭취 실태
7 면	우리 대학 학생들의 아침 식사 빈도는?
8 면	스마트자동차공학과 학회장 '김준하', 건축과 학회장 '강은우'

알 려 드 립 니 다

• 4월 21일(화) ~ 4월 27일(월): 1학기 중간고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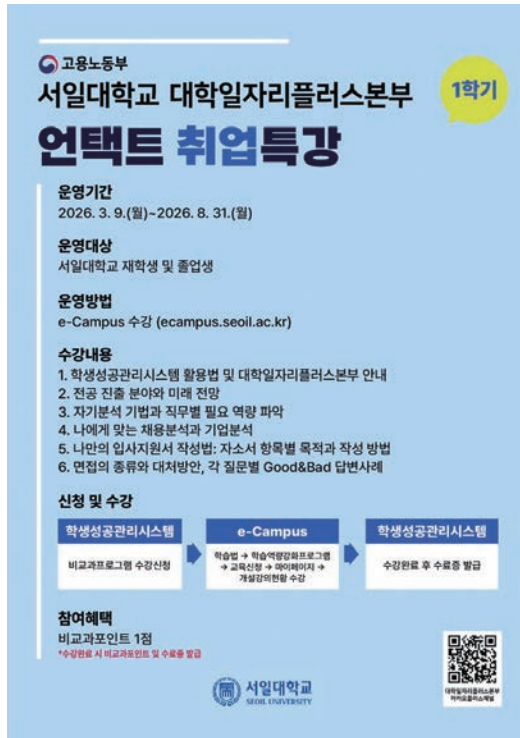
보도기사

우리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 소개

우리 대학이 지난 3월 3일부터 재학생의 진로 설계와 학습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 ▲진로 탐색 ▲학습 코칭 ▲자기관리 상담 등 여러 분야로 구성됐으며, 재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과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본부와 학생상담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온라인 강의와 집단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본부는 지난 3월 9일부터 '엔택트 취업특강'과 '엔택트 진로 특강'을 시행 중이다. 두 특강은 e-Campus를 통해 온라인 강의 형태로 제공되며, 우리 대학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폭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엔택트 취업특강에서는 ▲학생성공관리시스템 활용 방법 ▲대학 일자리 플러스 본부 안내 ▲전공 분야 진출 전망 ▲직무별 요구 역량 분석 ▲채용 정보 분석 방법 등을 다룬다. 또한 입사지원서 작성 방법과 자기소개서 항목별 작성 전략, 면접 유형별 대응 방법 등 취업 준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 엔택트 진로 특강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진로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직업과 일에 대한 이해, 자기 분석 방법, 진로 계획 수립 과정 등을 중심으로 진로 탐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 프로그램은 학생 성공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 완료 시 비교과 포인트 1점이 부여된다.

학생 상담센터에서는 학우 간의 소통을 통한 적응 지원을 위해 ‘포레 상담 멘토 모집’도 진행



▲ '언택트 취업특강' 포스터

플러스본부 1학기

했다. 지난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모집했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지난 3월 20일부터 오는 4월 17일까지 5주간 진행되는 ‘대학생 솔리언 토래 상담사 양성 교육’에 참여한다. 교육 이수 후에는 토래 상담과 멘토링 활동을 통해 재학생들의 대학 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활동 멘토에게는 SU포인트와 함께 토래 상담사 임명장이 수여된다.

학습 및 자기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학습 코칭 집단상담’은 지난 3월 18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4주간 매주 수요일에 운영되며, 2학년부터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관리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오는 4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 운영된다. 특히 자기관리 프로그램은 시간 관리 방법과 우선순위 설정, 계획 실천 전략 등 실무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리 대학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재학생의 진로 설계와 학습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생 성공관리시스템과 e-Campus를 통해 프로그램 신청과 수강을 할 수 있다. 재학생들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준비 정보와 진로 탐색 자료를 확인하고 학습 및 자기관리 역량을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고민에 대한 상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내실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준호 기자 ydd21112@gmail.com

기획보도 1

우리 대학, 서울권 전문대 취업률 상위권 기록

1. 전국 전도대 및 4년제 취업률 상황

※ 4년제대: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가공/의약계열, 인문, 석·박 및 졸업후 취업이 보장된 계약학과를
포함한 대학이고, 가계학대, 사범대학 제외한 일반대 기준/졸업 후 취업이 보장된 계약학과 제외.
※ 2025년 9월/지표(2024년 기준, 2026년 1월 9일 공식 기준)

1) 전국

대학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준대	129	61.6%	69.3%	68.7%	69.9%	69.7%	67.4%	69.6%	71.5%	71.1%	70.9%
4년제대	220	56.3%	63.2%	61.3%	62.9%	61.7%	59.5%	62.6%	64.9%	63.1%	61.9%
계약(전도대-4년제)	5.3%	6.1%	7.4%	7.0%	8.0%	7.9%	7.0%	6.6%	8.0%	8.1%	

2) 서울

대학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준대	9	56.4%	65.6%	64.6%	65.8%	65.4%	61.1%	65.8%	66.3%	66.3%	64.6%
4년제대	43	58.7%	65.6%	63.7%	66.0%	65.9%	64.5%	67.2%	68.6%	66.8%	65.1%
계약(전도대-4년제)	2.87%	3.34%	4.55%	3.96%	4.18%	4.55%	3.43%	3.35%	2.29%	0.51%	0.50%

3) 강원

대학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준대	33	60.6%	68.7%	68.5%	69.3%	68.7%	66.3%	68.9%	70.1%	69.5%	68.9%
4년제대	41	57.7%	65.3%	63.9%	65.6%	64.6%	61.8%	65.8%	68.5%	66.1%	64.4%
계약(전도대-4년제)	2.87%	3.34%	4.55%	3.96%	4.18%	4.45%	3.05%	1.55%	0.43%	0.45%	

4) 지방

대학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전준대	87	63.1%	70.3%	69.5%	71.0%	71.1%	69.1%	70.7%	73.3%	73.0%	73.2%
4년제대	136	55.1%	61.8%	59.8%	61.1%	59.5%	57.9%	60.0%	62.5%	60.5%	59.9%
계약(전도대-4년제)	8.0%	8.5%	7.8%	7.9%	8.1%	7.20%	10.7%	10.2%	12.1%	13.3%	

▲ 종로학원이 분석한 2024년 기준
전국 전문대 및 4년제대 취업률

크게 뛰어올랐다. 이러한 전문대 강세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학이 2026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 21.99대 1을 기록하며 ▲삼육보건대 ▲인덕대 ▲서울여자간호대 등과 함께 서울 권 상위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종로학원 측은 "4년제대 졸업 후에도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대는 높은 취업률 덕분에 정시 지원자 수가 늘었을 것이며, 적성 등이 고려된 학과와 대학에 대한 선호도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우리 대학은 내실 있는 실무 교육과 체계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강력한 취업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우리 대학이 전국 전문대학 취업률의 가파른 상승세와 더불어 서울권 전문대 정시 경쟁률 상위권을 기록하며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종로학원이 분석한 2025년 대학 공식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전문대 평균 취업률은 70.9%로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인 61.9%보다 9.1%p 높게 나타나 10년 만에 역대 최대 격차를 보였다. 또한 서울권 9개 전문대의 정시 지원자 수는 총 4만 7,653명으로 전년 대비 25.0% 증가했으며, 평균 경쟁률 역시 10.49대 1에서 15.67대 1로

서 우리 대학이 2026학년도 정시 모집
특대 ▲서울여자간호대 등과 함께 서울
로학원 측은 "4년제대 졸업 후에도 취업
에 정시 지원자 수가 늘었을 것이며, 적
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강력한 취
업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기획보도 2

2025학년도 ‘글로벌 서일 인재 양성’ 프로그램 성료



▲ '글로벌 서일 인재 양성' 프로그램 성료

전문대학교혁신지원사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사업 목적으로 추진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전공 연계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현지에서 집중 어학연수와 직무 연계 영어 교육을 받았으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의 협업 활동을 통해 실무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현지 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기업 문화와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해외 취업 및 국제 진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고, 토렌스 대학교와 시드니공과대학교에 방문해 첨단 교육 시설과 교육 시스템을 견학하며 해외 고등교육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프로그램을 인솔한 우리 대학 조은숙 교수(소프트웨어공학과)와 조수익 교수(디지털 트윈엘리베이터학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생들이 언어 능력뿐 아니라 해외 취업과 국제적 진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갖게 된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대학은 전문대학교혁신지원사업단을 중심으로 교육부 및 지자체 정책과 연계한 글로벌·산학·전공 연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업 현장과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리 대학이 지난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2주간의 ‘글로벌 서일 인재 양성’ 해외 전공 연수를 성료했다. 이번 연수에는 소프트웨어공학과와 디지털트윈엘리베이터학과 학생 27명이 참여했다.

최용렬 기자 dydfuf123@gmail.com

신은선 기자 goldsun052@gmail.com

심층보도



카페인 섭취 실태

각성의 습관과 의존의 민낯

시험 기간 대학생의 카페인 섭취가 성인 평균을 크게 웃도는 가운데, ‘파도형 섭취’가 불러온 내성과 부작용의 실체를 조명한다. 특히 학습 성과와 스트레스 완화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성 효과라는 주관적 믿음 뒤에 숨겨진 의존의 민낯을 짚어본다.

대학생들의 카페인 섭취는 더 이상 커피 몇 잔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카페, 편의점, 에너지 음료가 얹힌 일상에서 카페인이라는 하나의 생활 환경이자 학습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카페인 일일 섭취량은 약 68mg으로, 성인 최대 권고량 400mg의 약 17% 수준이다. 그러나 대학생 집단으로 범위를 좁히면 양상은 달라진다. 관련 연구에서 대학생 810명의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약 120mg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국민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커피뿐 아니라 녹차, 탄산음료, 초콜릿 등 무심코 섭취하는 ‘숨은 카페인’까지 합산해 계산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는 카페인의 누적을 드러냈다.

국내 대학생들의 카페인 섭취 현황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카페인 음료 섭취가 매우 흔할 뿐만 아니라 시험 기간에는 평소보다 섭취량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시험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카페인 섭취가 급증했다가, 평상시에는 평균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파도형 패턴’을 보여준다고 보고한다. 이는 연간 평균으로는 안전해 보이더라도, 특정 시기에는 건강에 부담을 줄 만큼의 고농도 섭취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내성이다. 단기 목표를 위해 카페인에 의



▲ 편의점에 커피가 진열되어 있는 모습

존하기 시작하면 뇌는 자극에 적응하게 된다. 처음에는 커피 한 잔으로도 잠이 달아났지만, 곧 같은 양으로는 비슷한 효과를 얻기 어려워진다. 앞선 연구에서 대학생 61%가 카페인 내성을, 46%가 두통, 피로, 집중력 저하 등을 동반한 금단 증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이미 상당수의 학생이 의존의 문턱을 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성과 금단을 동시에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카페인이라는 단순한 기호를 넘어 신체 리듬과 기분을 조절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즉각적인 부작용을 일으킨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카페인 중독 진단 기준(DSM-5)’에 따르면 ▲

시리즈 순서

- 1) 카페인의 일상화
- 2) 카페인 섭취 실태
- 3) 카페인의 양면성
- 4) 카페인 소비를 만드는 구조



안전부절못함 ▲불면 ▲소화불량 ▲근육 경련 ▲부정맥 등 12가지 증상 중 5가지 이상이 나타날 경우 중독 상태로 본다. 질병관리청은 반복적인 섭취가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다음 날 다시 고카페인을 찾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한다.

카페인 음료가 정말 공부와 스트레스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다소 엇갈린다. 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에너지 드링크를 포함한 카페인 음료 섭취 실태와 스트레스, 학습 태도, 수면시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즉 “카페인을 마시면 공부가 잘 된다”라는 학생

들의 주관적 믿음과 달리, 실제로는 학습 태도나 스트레스 지표에 뚜렷한 개선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기분상 좋아진다고 느끼는 효과’와 ‘실제 성과의 차이’를 냉정히 구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학생들이 카페인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다. 다만 지금 내 책상 위에 놓인 컵과 캔들이, 오늘 하루와 이번 학기 전체의 리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숫자와 연구 결과를 통해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카페인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강 전략일 것이다.

신은선 기자 goldsun052@gmail.com

학생의 목소리

학보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받는 사람: 서일대학교 학생분들

대학교에서 첫 시험이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곧 있을 기말고사도 파이팅하세요! 다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요. 같이 좋은 성적 받아요!

— 보내는 사람: 익명

받는 사람: 영화방송공연예술학과 연기 전공 학생분들

3학년 선배님들! 젊은 연극계 응원합니다! 또 1, 2학년 학생분들의 연극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같이 좋은 연극 올려봐요. 화이팅!

— 보내는 사람: 익명



교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학보사에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랜덤으로 당첨자를 선별하여 학보에 메시지가 실린 학생에게는 문확상품권을 드립니다.

신청은 재학생만 가능하며 받는 사람은 학교 관계자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서일학보사 인스타그램(@seoil_press)으로 학과, 학번, 이름, 연락처와 함께 받는 사람,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 INTERVIEW

대학 생활 로망

저는 캠퍼스 커플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서로의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강의를 듣고 공강 시간에는 카페에 가거나 캠퍼스를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제가 상상해 온 대학 생활의 낭만입니다.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힘들 때는 위로가 되어 주는 관계도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평범한 학교생활 속에서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경험은 대학 생활에서 한 번쯤 느껴보고 싶은 로망입니다.



▲ 미디어출판학과 24학번 박서연

지역사회



중랑구, 취업 준비 청년 시험응시료 10만 원 지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지역 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중랑구에 거주하는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생애 최대 10만 원 범위에서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1인 연 10만 원 이내 지급에서 생애 10만 원 이내 지급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2025년까지 동일 사업에서 10만 원 미만의 지원을 받은 청년은 기존 지원 금액의 차액만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2025년 내 10만 원 기지원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동일 기간 내 6만 원 기지원자는 차액인 4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미취업 청년뿐만 아니라 민간 취업 지원을 위한 동행일자리 등의 정부일자리 참여자, 근로계약 기간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시험은 ▲공인어학시험(토익·토플·오픽)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국가공인민간자격증 등이며, 경찰청에서 주관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4년 '중랑 청년을 만나다'에 참석한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청년들

외된다. 특히 2026년에 응시한 시험의 경우 공고 이전에 치른 시험도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12월 10일을 마지막으로 신청을 마감한다. 지원금은 매월 1~20일 기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익월 10일까지, 20일 이후에 접수된 건은 익월 1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이메일 또는 중랑구청 지역경제과 청년지원팀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중랑구는 청년 활동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중랑청년청을 개관했다. 중랑청년청은 다목적 공간, 오픈 라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 간 문화 교류와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반복되는 시험 응시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자신 있게 도전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신은선 기자 goldsun052@gmail.com

서일소식

우리 대학 실내디자인학과 ‘우수교육과정’ 표창 수상



▲ 우수교육 과정 표창을 받은 우리 대학 실내디자인학과 학생들

우리 대학 실내디자인학과가 2025년 과정평가형 실내건축산업기사 과정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로부터 ‘우수교육과정’ 표창을 수상했다.

과정평가형 실내건축산업기사는 필기·실기시험 중심의 기존 방식과 달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내부·외부 평가를 통과해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다. 이번 과정에서 우리 대학 실내디자인학과는 응시 학생 대비 94%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며, 현장 중심 교육의 성과를 입증했다.

실내디자인학과는 NCS 기반 실습 중심 수업과 산업 현장을 반영한 프로젝트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설계 ▲시공 ▲재료 ▲

조명 등 실무 전 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전공 교과와 국가자격 과정의 연계를 통해 학습과 동시에 자격 취득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실내디자인학과 이종희 학과장은 “이번 선정은 학생들의 성실한 참여와 교수진의 현장 중심 지도, 학교의 교육 지원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격 기반 교육과 창의적 실습을 균형 있게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 실내디자인학과는 AI 기반 공간 시각화, 실습형 조명·가구 제작, 산업체 연계 캡스톤 디자인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과 현장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곽서은 기자 jssu090918@gmail.com

학과 STORY

유아교육학과

정의롭고 바르게 교육하는 유아교육학과

우리 대학 미래 창도 유아교육학과는 영유아 교육 분야의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학과는 전문학사과정 3년제와 학사학위 전공심화 과정 1년제로 구성돼 있으며 미래 사회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영유아 교육 전문가 양성을 교육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학과는 대학의 핵심 교육 목표인 ▲창의융합형 교육 ▲현장 중심형 교육 ▲자기 주도형 교육 ▲인성·지성형 교육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교원과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학과에서는 ▲창의·융합형 영유아 교사 ▲인성·지성형 영유아 교사 ▲현장 친화형 영유아 교사 ▲교직 실무형 영유아 교사 ▲에듀테크형 영유아 교사 양성을 주요 교육 방향으로 제시한다. 학생들은 유아교육의 기초 이론부터 심



▲ 유아교육학과 홈페이지 사진

화 실습까지 교육 과정 및 교육 방법, 교사 교육 영역 등 폭넓은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재학생은 교육부에서 발급하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졸업생의 주요 진로로는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교사 ▲국공립·민간·법인·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 교직원 ▲유아 교재교구연구소 연구원 ▲유아 출판사 기자 등이 있다.

이준호 기자 ydd21112@gmail.com

사설

우리 대학의 다양한 장학제도

우리 대학은 재학생들이 학업 성취와 생활 안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교내 장학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입학 성적 우수자부터 자치 활동 참여자, 창업 도전 학생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성적 기반의 대표적 혜택인 호천 장학금은 신입생 중 수시와 정시 전형별 전체 1, 2등에게 첫 학기 수업료 전액을 면제한다. 이후 평균 학점 3.5 이상 유지 시 졸업까지 전액 지원이 이어지며, 학과별 수석 역시 동일 혜택을 받는다. 학과 규모에 따라 수업료의 40%에서 전액을 차등 지급하는 지덕배양 장학금과 별도의 50만 원 추가 지원금도 운영된다.

학생 자치 및 공로 격려를 위한 제도도 활발하다. ▲총학생회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등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위한 초지일관 장학금은 회장단에게 수업료 전액 또는 80%를, 임원진에게는 최대 60%를 지급한다. 대학 발전에 이바지한 학생을 위한 공로 장학금과 학보사·방송국 장학금 등도 각 활동 학생에게 지급된다.

경제적 상황에 맞춘 복지 장학금도 마련되어 있다. 소득분위에 맞춰 지급되는 서일사랑 장학금과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보훈 장학금이 대표적이다. 학사경고 이후 학점을 3.0 이상으로 올린 학생을 위한 성적향상 장학금과 교내 근로자를 위한 서일 도움 장학금도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서일가족 ▲세움(장애 학생) ▲돌움(다문화가정) ▲탈북 대학생 장학금 등 세심한 배려가 담긴 항목이 마련되어 있다.

창업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창업 장학금 ▲해외 학기제 장학금 ▲외국인 및 TOPIK 성적 우수 장학금도 상시 운영 중이다. 모든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되나, ▲서일 도움 ▲포인트 ▲창업 ▲공로 장학금 등 일부 항목은 예외적으로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할 수 있다. 단,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자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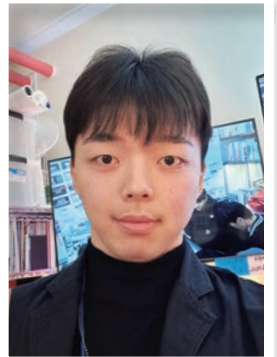
AI는 일을 빼앗는가, 진화시키는가

취재부 기자 이준호

인공지능(AI)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AI는 인간의 일을 빼앗는가'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역사적으로 늘 존재해 왔다. 실제로 자동화와 알고리즘이 단순 업무를 대체하며 일부 직무가 축소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중에게 기술 발전이 곧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기술 발전의 흐름을 거시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른 이면이 보인다. 과거에 컴퓨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 도 사회는 비슷한 우려에 휩싸였다. 계산과 문서 작업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면 인간의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는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만 흘러가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산업과 직업이 등장했고,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 또한 크게 변화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반복적인 계산이나 기록 업무가 컴퓨터로 대체되었다. 그 대신 사람은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의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기술이 인간의 일을 대체한 것이 아닌, 일을 수행하는 방식과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 셈이다. AI 역시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데이터 분석, 문서 작성,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가 활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AI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역할이 등장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업무는 단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적이고 전문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다. AI는 인간의 일을 단순히 빼앗는 존재라기보다 일을 새로운 방향으로 확장하고 진화시키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는 분명 불안을 동반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 또한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학생칼럼

견(見)과 견문(見聞)

사회복지학과 김지수

몇 년 전, 미술관에서 이중섭 작가의 소 그림을 감상하게 되었다. 화려한 로코코 회화를 좋아하는 나에게 그 그림은 화려하지도, 색감이 다양하지도 않았으며 특별히 섬세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소보다 소의 뼈대를 그린 것 같은 모습에 '왜 사람들은 이중섭 작가가 그린 소를 좋아할까?'라는 의문만 들었을 뿐이었다.

그 이유가 궁금해진 나는 그림을 진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바로 '견(見)'을 실천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거친 그림체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이중섭 작가는 소를 아름답게 그리기보다 자신이 바라보고 느낀 소의 모습을 표현하였고,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 쉽게 따라 그릴 수 없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견을 실천하며 그림을 바라보니 처음과는 달리 이 그림이 작가의 시선과 생각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에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작가의 시선과 생각 같은 더 중요한 본질이 담겨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림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림의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작품을 평가하던 것에서 벗어나, 그 이면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그림에서도 '견'을 제대로 실천했을 때, 한 번의 전시회 방문만으로도 나는 '견문(見聞)'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일상에서도 견문을 얻을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매번 같은 모습으로만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에서 한 번쯤 견문을 얻기 위한 '견'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서일만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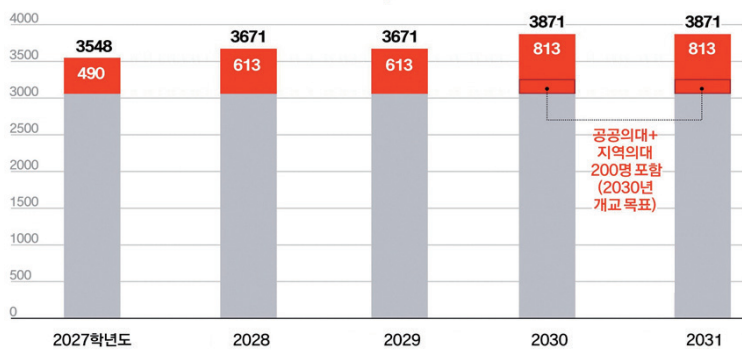
사회문화

의대 정원 5년간 3,342명 증원 확정... 내년 490명 확대

연도별 의대 증원 규모

단위: 명
● 기존 정원(전국 40개 의과대학 정원 3058명)
● 증원 규모 ● 총 정원

5년간 총 3342명 증원
(비서울권 의대 대상, 지역 의무복무를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 적용)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5년 간의 의대 증원 규모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적용될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2031학년도까지 비서울권 및 신설 의대를 중심으로 총 3,342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증원 인원은 서울을 제외한 32개 기존 의대에서 전원 지역의사제를 통해 선발한다. 지역의사제 입학생은 정부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10년간 출신 고교 소재지 인근 지역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대학별 증원 상한을 설정했다.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국립대는 100%, 50명 이상 국립대는 30%의 증원을 적용하며 사립대는 규모에 따라 20~30% 상한을 차등 적용한다. 또한 의학 교육 인프라 확충과 교육 지원을 통해 의대 교육의 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최용열 기자 dydfuf123@gmail.com

경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 제도 신설



▲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

정부가 국내 자본 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 지원 제도를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20일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발표했다. 국내 시장 복귀계획(RIA)에서 해외주식 매도금을 1년간 국내 주식·펀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을 공제한다.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까지 적용되며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 등 복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하면 공제 혜택은 비례하여 조정되고,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하는 특례도 마련된다.

또한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95%에서 10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납입금 2억 원 한도 내 배당소득 9% 분리과세와 함께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곽서은 기자 jssu090918@gmail.com

2026 밀리로드 출간 공모전

시즌2 26.03.01 - 05.31

총 1억 규모, 내 작품을 베스트셀러로!



[밀리의 서재] 2026 밀리로드 출간 공모전 시즌2

| 내 용 | - 총 1억 규모 공모전으로 매 분기 40명을 선정하여 총 1,750만 원의 창작 지원금을 지원
- 다산북스, 밀리의 서재 등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을 지원
- 출간 예정작 일부는 3천만 원 상당의 마케팅을 지원
- ▲에세이 ▲소설 ▲인문 ▲과학 ▲웹소설 ▲웹툰 등 제한 없음

| 접수기간 | 2026. 03. 01.(일) ~ 2026. 05. 31.(일)

| 대 상 | 만 14세 이상 지원자

| 신청방법 | 기간 내 밀리의 서재 내 '밀리로드'에서 새 에피소드를 8화 이상 공개 발행한 신규 공개 작품이면 참여 완료 (예외, 3월 오픈런 특별상 : 26년 3월 중 새 에피소드를 1개 이상만 공개 발행한 신규 공개 작품이면 참여 완료)

| 주요사항 | - 최우수상(5명) : 각 200만 원, 출판사 피드백, 출간 기회
- 우수상(10명) : 각 50만 원
- 장려상(25명) : 각 10만 원
- 3월 오픈런 특별상(1천 명 추첨) : 딸기우유 기프티콘

| 문 의 | 밀리의 서재 [관리 > 고객센터 > 1:1 문의]

특집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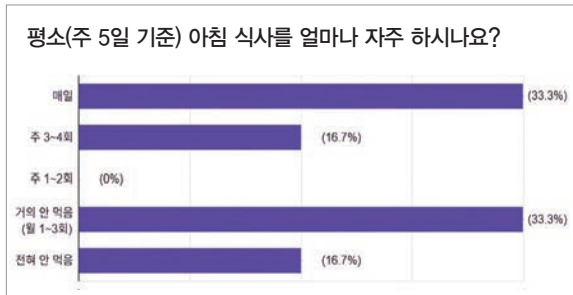
우리 대학 학생들의 아침 식사 빈도는?

아침 식사 먹느냐, 먹지 않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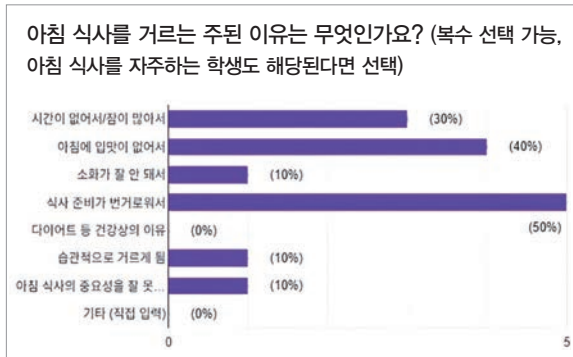
지난 3월 5일 우리 대학 학우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아침 식사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대학생들의 식습관 현주소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 아침 식사 빈도는 매일 챙겨 먹는 집단과 거의 먹지 않는 집단으로 나뉘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으며, 아침을 거르는 주된 원인은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과 시간 부족이었다.

평소 주 5일 기준으로 아침 식사 빈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도출됐다. 응답자 중 '매일' 챙겨 먹는 학생과 '거의 안 먹음(월 1~3회)'이라 답한 학생이 비슷한 응답률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주 3~4회'와 '전혀 안 먹음'을 선택한 비율이 동일하게 뒤를 이었다. 이는 학우들의 식습관이 아침밥을 사수하는 부류와 포기한 부류로 명확히 갈려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기상 시간과 통학 거리에 따라 식사 여부가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 학우는 "통학 시간이 길어 1교시 수업에 맞춰 등교하려면 아침을 먹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며 "시간이 부족해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거나 거르는 일이 다반사다"라고 토로했다.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학생들은 어떤 음식을 선호할까. 복수 응답으로 진행된 아침 식사 종류 질문에서는 '밥(한식, 국 포함)'과 '빵/토스트/시리얼/샌드위치'가 각각 응답의 40%를 차지하며 공동 1위에 올랐다. 든든한 한식을 원하는 학생과 바쁜 아침에 빠르게 섭취할 수 있는 간편식을 선호하는 비율이 일지한 것이다. 이어서 '우유/두유/요거트'를 섭취한다는 응답이 30%를 기록해, 별도의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식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과채류나 단백질셰이크, 패스트푸드 등은 각각 10%에 그쳤다. 이는 아침을 먹더라도 준비 시간을 최소화하려는 실용적인



▲ 아침 식사 빈도



▲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된 이유

식습관 흐름을 보여준다. 아침 메뉴로 시리얼을 주로 먹는다는 한 학우는 "아침에는 밥을 차리고 치우는 과정이 부담스러워 우유에 타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시리얼을 선호한다"라고 전했다.

학우들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복수 응답 결과, 가장 주된 원인으로 '식사 준비가 번거로워서'라는 답변이 전체의 50%를 차지했다. 식재료 구매부터 요리, 설거지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어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가 40%로 2위를 차지했으며, '시간이 없어서/잠이 많아서'가 30%로 그 뒤를 이었다.

과제와 아르바이트 등으로 수면이 부족해진 학생들이 아침 식사보다 단잠을 선택하는 현실이 투영된 셈이다. 이 외에도 소화 불량이나 습관적 결식, 아침 식사의 중요성 인지 부족 등이 각각 10%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불규칙한 식습관이 장기적인 건강 악화와 학업 능력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영양학 전문가는 "아침을 거르면 점심이나 저녁에 폭식할 확률이 높아져 비만이나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거창한 식사가 아니더라도 바나나, 견과류, 우유 등 섭취가 간편한 음식으로 아침을 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번 조사는 우리 대학 학우들이 겪는 바쁜 일상과 생활 활의 고충을 여실히 보여준다. 번거로움과 시간 부족이라는 장벽 앞에서 아침 식사는 필수 일과가 아닌 선택적인 일로 치부되고 있다. 교내에서 저렴하고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학우들의 식습관 개선에 긍정적인 자극제가 될 것이다. 학교 차원의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맞물린다면 아침을 포기하는 학우들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든든한 아침 식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학우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란다.

이준호 기자 ydd211112@gmail.com

독자와 함께 만드는 학내언론

서일학보에서는 학내 구성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서일학보사 홈페이지: 기사제보함
인스타그램: @seoil_press

서일학보 디자인 및 인쇄
진영DPI (T. 02-2263-3388)

특집 2

사라진 계절, 봄은 어디로 갔나

‘계절 압축’이 보내는 경고



학기를 맞이한 지 한 달이 지난 4월, 현재 캠퍼스의 기상 지표는 이미 여름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기상청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기온은 평년 치를 크게 웃돌며 역대급 고온 현상을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교정의 벚꽃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일주일 이상 앞당겨졌으며, 4월 초순 이미 낙화가 완료된 곳도 적지 않다. 겨울과 여름 사이의 완충지대였던 기상학적 봄의 존속 기간이 급격히 압축되어 계절 감각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기저에는 가속화된 기후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10년간 한반도의 온난화 속도는 전 세계 평균을 웃돌며, 겨울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계절 이동 현상이 굳어졌다. 특히 기후학자들은 겨울이 일찍 끝나고 곧장 여름으로 진입하는 최근의 날씨를 계절 압축으로 진단한다. 이는 대륙 고기압의 세력이 급격히 약화하면서, 봄의 시작은 빨라진 반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이른 확장으로 여름이 봄의 영역을 잠식하는 현상을 말한다. 과거 한 달 내내



▲ 지난 3월 2일 부산에서 꽃망울을 터트린 벚꽃

즐길 수 있었던 상쾌한 봄바람은 이제 단 2주 남짓한 찰나의 계절로 전락하고 말았다.

봄의 실종은 단순한 기온 상승 이상의 생태적 재앙을 내포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생물 종 간의 상호작용이 어긋나는 생태학적 미스매치다. 꽃의 개화 시기는 빨라졌으나 수분 매개 곤충의 활동 시기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식

물의 번식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는 지역 생태계뿐만 아니라 농가의 냉해 피해로까지 이어진다. 또한, 길어진 고온 건조기로 인해 4월의 대형 산불 위험도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기 정체 현상과 맞물린 미세먼지 농도의 상승은 학생들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사라진 봄은 지구 생태계가 우리 사회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음이다. 이제 우리는 ‘이상 기온’이라는 표현 뒤에 숨은 본질적인 기후 재난을 직시해야 한다. 개별적인 에너지 절약을 넘어, 공동체 차원의 탄소 중립 선언과 기후 위기 대응 담론이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기후 변화를 기록하고 감시하는 시민의 역할은 이제 지성인의 필수적인 덕목이 되었다. 내년에도 우리가 교정에서 온전한 봄바람을 맞이할 수 있을지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사라진 계절에 대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느냐에 달려 있다.

신은선 기자 goldsun052@gmail.com

인터뷰 1

자동차의 미래를 배우다

스마트자동차공학과 학회장 김준하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자동차공학과 2026학년도 학회장 김준하입니다.

해당 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자동차공학과는 자동차의 설계와 성능 개선, 친환경 기술 등을 배우는 공학 계열 학과입니다.

최근에는 전기·전자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융합 학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엔진 분해 및 조립, 차량 정비 실습으로 자동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직접 개발 및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학회장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새내기꿈터를 기획하고 운영하며 학우들과 우애를 다지고 좋은 추억을 쌓은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새내기꿈터를 계획하면서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부학회장 및 학과 사람들과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함께 성장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 스마트자동차공학과 학회장 김준하

해당 과의 재학생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을 처음 조립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론 강의로만 접했던 엔진을 제 손으로 직접 분해하고 조립하였을 때, 제가 스마트자동차공학과에 일원이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러한 실무 경험이 바탕이 되어 자동차정비기능사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전적으로 믿고 도와주는 부학회장님과 교수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학과에 좋은 영향만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학과에 입학하신 신입생분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자동차학과 여러분 모두 원하는 꿈을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곽서은 기자 jssu090918@gmail.com

인터뷰 2

사람과 공간을 잇는 학문, 건축과

건축과 학회장 강은우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과 제36대 학회장 강은우입니다. 학과 구성원들이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학과를 대표해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축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머무르는 모든 장소가 건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축과는 단순히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삶과 동선, 주변 환경까지 고려해 더 나은 공간을 만드는 학과입니다. 설계 수업을 중심으로 구조, 시공, 법규 등 실무적인 내용도 함께 배우며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익힐 수 있습니다.

학회장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졸업작품전시회입니다. 선배들의 작품을 가까이에서 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전시를



▲ 건축과 학회장 강은우

준비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선배님들이 감사 인사를 건네주시는 모습을 보며 학회장을 맡길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해당 과의 재학생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첫 야간 설계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작품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지만, 스스로 만족하고 싶어 친구들과 함께 늦게까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보완하며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고, 힘들었지만 그만큼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에 입학하신 신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학과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학회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서은 기자 jssu090918@gmail.com